

TPP 효과, 한일 비교

- 세계은행은 TPP 타결로 일본은 GDP와 수출이 각각 2.7%, 23.2% 증가하는 반면, 한국은 TPP 비참가로 GDP가 0.3%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
 - 특히, 한국은 태국과 함께 TPP 비참가국 중 TPP 비참가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
- TPP 참가국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되는 점 등을 노려, 미국과 일본이 조기발효와 가맹국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,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도 TPP 가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

□ 세계은행, TPP 효과 시산

- 최근 발표한 세계은행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TPP 타결로 일본의 GDP는 2030년까지 2.7% 증가, 12개 참가국 평균수준의 2배 이상이 될 전망
 - 상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매업 진출 등의 증가효과도 예상됨에 따라 조기발효에 의한 이익극대화가 과제
- TPP는 관세철폐 등을 통한 상품무역의 확대만이 아니고, 각국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 등도 국제적 사업 전개가 가능하게 되는 점이 특징임
- 12개 TPP 참가국들은 2월 4일에 뉴질랜드에서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가는데, 각국의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2017년 발효될 전망

□ 일본의 GDP증대 효과는 6번째로 높음

- 세계은행은 참가국들의 2014년 GDP와 수출액을 기준으로 2030년 시점의 효과를 시산했는데, 일본정부가 2015년 12월 공표한 시산결과와 비교하여 농업 강화 등의 효과가 세계은행의 시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세계은행의 시산에 따르면 12개 TPP 참가국들의 GDP는 평균 1.1% 증가

- 참가국별로는 對미국 섬유제품 수출 증가와 외자규제 철폐에 의한 베트남의 GDP 증대효과가 10%로 가장 효과가 크고, 마찬가지로 외자규제가 철폐되는 말레이시아(8%)와 브르네이(5%)가 베트남의 뒤를 이음
- 일본은 2.7%로 12개국 중 6번째로 GDP증대효과가 크며, 금액으로는 13조엔 정도 증가
- 미국과 캐나다, 멕시코는 이미 NAFTA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어 TPP효과가 한정적인데, 미국의 GDP증대효과는 0.4%, 캐나다는 1.2%에 그침

<TPP 참가국별 TPP 발효에 의한 GDP·수출증대효과>

TPP 참가국	GDP증가율(%)	수출증가율(%)
미국	0.4	9.2
일본	2.7	23.2
캐나다	1.2	7.0
호주	0.7	5.0
뉴질랜드	3.1	12.8
멕시코	1.4	4.7
페루	2.1	10.3
칠레	1.0	5.3
싱가포르	3.0	7.5
베트남	10.0	30.1
브르네이	5.0	9.0
말레이시아	8.0	20.1

□ 일본의 수출증대효과는 2번째로 높음

- 수출액은 12개국 단순평균으로 12% 증가
 - 베트남은 수출 면에서도 30.1%로 증가율이 12개국 중 가장 높으며 베트남에 이어 일본의 수출은 23.2% 증가
- TPP 발효로 일본에게 플러스 효과를 안겨주는 국가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규제완화가 진전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임
 - 이제까지 규제에 묶여 진출하지 못했던 편의점이나 은행분야에 일본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효과가 큼

□ 비관세장벽의 철폐·완화가 GDP 증대에 크게 기여

- 세계은행도 TPP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철폐보다도 외자유제나 복잡한 세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·완화에 의한 효과 쪽이 크다고 분석
 - 12개국의 GDP증대효과 중, 관세철폐가 기여하는 분은 약 15%, 비관세장벽 철폐·완화의 기여분은 약 35%
 - 일본정부가 발표한 시산결과에서도 관세철폐효과에 더하여 비관세장벽의 철폐·완화 효과까지 고려하면, GDP증대효과가 14조엔
 -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시산결과에서는 금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세계은행의 시산과 거의 같은 숫자임

□ TPP 비참가국 중 한국과 태국의 타격이 가장 큼


- 한편, TPP 비참가국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으나 예외가 있는 국가가 있음
 - 세계은행 시산에 의하면, TPP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게 되는 나라가 태국과 한국임
 - 세계은행은 TPP 비참가로 태국은 GDP가 0.9% 감소, 한국은 0.3%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
-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對미국 자동차수출 등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이나, 자유화 정도가 높은 TPP 비참가로 인해 이 같은 우위성을 상실
- 혼다와 닛산자동차 등 다수의 일본 업체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태국도 TPP 발효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입지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
- 따라서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 위기감은 있다고 닛케이 신문은 보도

- 한국은 TPP가 타결된 직후 참가준비 의사를 표명
- TPP가입에 신중한 태국도 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
-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도 TPP참가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

□ 미일은 TPP의 조기발효와 가맹국수 확대로 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력

- 가입국이 늘어나면 수혜 가능한 경제적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되는 점 등을 노려, 미국과 일본 등은 조기발효와 가맹국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시사점

- 세계은행 보고서는 무역실적을 베이스로 하여, 새로운 밸류체인·신제품이 창출되는 효과를 포함하지 않아, TPP 등의 효과를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고, 또 분석모델에서도 생산성 상승 메커니즘은 부분적인 것에 그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
- 이는 TPP를 활용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실재는 더욱 클 가능성을 시사
- 한국을 포함하여 태국과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이 참가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점도 작용
- 앞으로 각국의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전되면 참가희망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

<참고자료>

- 닷케이신문(2016.1.8.)
- 일본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, 「TPP협정의 경제효과 분석」(2016.1.6.)